

일반적인 수시 지원 전략” 김재원(대동고등학교)

2019학년도 대입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약 76.2%, 정시모집에서 약 23.8% 학생을 선발한다. 지원 횟수도 수시모집은 최대 6회 지원이 가능하지만, 정시모집은 ‘가’, ‘나’, ‘다’군 각 1회씩 3회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정시모집의 경우 동일모집단위를 분할모집 할 수 없어 학과 선택의 폭도 작으며, 선발인원도 많지 않아 경쟁률의 영향도 무시 할 수 없다. 따라서 수능 성적을 단정적으로 예측, 확신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결국 정시모집의 불예측성이 크다는 얘기다. 따라서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이 학생부 교과 성적보다 좋다고 하여도, 수능 이후에 대학별고사를 보는 대학을 선택하든지, 학생부 영향력이 적은 전형을 선택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수시모집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시모집 지원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시 지원 대학 선택 시 우선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생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는 지원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시 지원 대학 선택 시 학력평가 등의 성적을 통하여 우선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성적위치에 따라서 더욱 효율적인 수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정시모집에서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대학이 수시모집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수시모집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시 합격전략이나 정시 합격전략이나를 결정 한다.

학생부와 학력평가 성적을 비교하여 편차가 아주 큰 경우, 학생부 성적이 많이 우수하면 수시 합격을 고려하여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하며, 합격 안전성이 높은 대학에 가능한 많이 지원하도록 한다. 학력평가가 월등히 우수할 경우에는 학생부 이외의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에 수능최저기준을 고려하여 상향 지원 전략을 세운다. 학생부와 학력평가의 편차가 작을 경우에는 정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수시에서도 지원한다. 이렇게 할 경우 해당대학에 지원 기회를 한 번 더 가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고,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합격 할 확률이 높아진다.

3.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최저학력기준을 확인 한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최저학력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전형요소에서 합격 할 수 있는 점수를 획득하였을지라도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대학의 최저학력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학이나 학과가 최저학력기준이 설정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경쟁률이 높아 질 수도 있다.

4. 유리한 전형 및 전형방법을 고려한 지원 대학을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성적이 아주 높은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으로의 지원이 유리하고, 학생부교과성적과 더불어 학생부비교과활동이 우수한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으로의 지원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논술전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생부교과성적의 영향력이 작고, 논술성적과 수능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부교과성적이 저조한 경우 대학별고사(논술, 면

접, 적성고사, 실기고사 등)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의 지원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때, 당연히 최저학력기준 통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회균형전형, 사회적배려자전형 등 지원 자격이 제한적인 특별전형의 경우, 일반전형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이거나 완화된 최저학력기준을 보이고는 있으나, 선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대학별 학생부 반영 방법은 상이하다.

대학의 학생부 반영 방법에 따라서 학생부 성적에서 유·불리가 나타난다. 이는 내 점수만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한 석차로 확인하는 것이 더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학교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지원한다.

6. 대학별고사(적성고사) 전형일정을 확인한다.

특정한 일자에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많을 경우 수험생은 분산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7. 수능 이후에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을 활용 한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을지라도 실제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시합격전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별고사가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불확실한 수능성적에 따른 보험 차원에서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특히 수능 전에 대학별고사 응시 횟수가 너무 많으면 수능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따라서 수능 전에 집을 떠나서 숙박하는 것을 3회 이상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8. 진로를 고려한 학과 선택 후, 경쟁률을 확인하고 최종 지원한다.

지원자격이나 선발방법, 학과 선호도 등 성적 이외의 여러 변수들로 인하여 경쟁률이 예년과 다를 수 있다. 특히 선발방법이나 모집단위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전년도 합격선을 고려한 지원 가능 점수는 더욱 예측이 힘들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경쟁률이 낮을 경우 전년도 합격 컷보다 다소 낮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경쟁률이 높을 경우 합격 컷은 올라 갈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경쟁률을 지켜보면서 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또한 경쟁률을 살펴 볼 때, 자신의 진로를 고려한 유사학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수시모집 지원표 작성 및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한다.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시모집 지원표를 작성한다. 하나의 표에 지원하고자 하는 여러 대학을 함께 적어서 비교 분석하면 더욱 효율적인 지원전략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수시모집 지원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불합격이 되더라도 감정의 혼란이 없어야 하며, 1단계에서 합격이 되더라도 최종합격증을 받기까지는 묵묵히 계획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